

게리 예이츠 박사, 12권, 6회, 아모스, 사회적 죄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아모스서, 사회적 죄 6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장을 공부하고 있으며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시작 부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것이 아모스서 메시지의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신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목자들의 초장이 슬퍼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느니라. 아모스는 이 책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우는 사자와 다가오는 폭풍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아모스 사역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즉 앗수르의 위기, 곧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강력한 군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시어 네 집을 떠나라. 네 사업의 번영을 남방에서 떠나라. 네가 하는 사업도 그만두라. 나는 당신이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 불성실, 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아모스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우는 사자와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다가오는 아시리아의 침공, 어떤 문제와 문제와 우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는 사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이러한 문제와 주제와 우려가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메시지를 매우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택할 수도 있고, 아모스의 메시지와 아모스의 신학을 생각하며, 이 책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

내 생각에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와 첫 번째 강조점은 아모스가 자신의 부에 안주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부에 안주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그들의 국경과 영토를 확장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접촉으로 인해 국제 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축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땅을 주시고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안전과 중요성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고, 그들의 소유물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부가 이 두 가지 언약적 책임 모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의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관대하고 비이기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은 더욱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물질주의적이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들의 탐욕과 물질주의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는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의미에서 북왕국의 부유한 여자들에게 비교는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 바산의 소들아, 이것을 들어라. 바산은 이스라엘 땅의 주요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살찌고, 가장 가치 있는 가축은 이스라엘의 이 특정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성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청중 가운데 여성에 관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는 누구라도 제가 존경하는 남성입니다. 나는 앞으로 봉사할 때 어느 때라도 그를 본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산의 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들은 체중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번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너희 남편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물을 가져오라 하느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즐거움에만 관심을 갖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동시에 자기 남편들에게 우리가 쓸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시되 날이 이르면 너희가 낚시를 낚아채고 너희 마지막 사람도 낚싯바늘을 잡고 끌려가서 너희가 각기 앞서가는 바위 틈으로 나가서 너희는 조화 속에 쫓겨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놀라운 변영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해 이사야 3장을 살펴보고 그가 거기 있는 유다의 부유하고 변영하는 여성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유배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추방의 모든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갈고리로 당신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리아 왕이나 아시리아 사령관이 갈고리를 코나 입을 통해 쫓아내는 모습을 실제로 묘사하는 아시리아의 비문과 부조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와 쾌락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모스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웃시야 2세의 변영하는 통치를 누렸습니다.

또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모스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화라는 개념은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애 오라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의 장례식 애도와 같습니다. 아모스는 너희가 이웃을 무시하였으므로 죽음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시온에서 평안히 살았느니라. 나는 Net Bible이 이 비애 오라클 아이디어를 번역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시온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이 일어나기 전에 장례식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바꾸지 않고, 탐욕스럽고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당신은 부유하고 번영하는 남쪽 왕국 시온, 예루살렘을 상상합니다. 북쪽에는 부유하고 번영하는 도시 사마리아와 거기에 부자와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왕과 관료와 연합하여 여로보암 2세와 웃시야의 치세에서 모든 혜택을 누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집이 다가온 첫 번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도자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려온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계속되는 대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신탁은 4절에서 계속되는데, 다시 죽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부자와 부유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상아 침대에 누우며 침상에서 몸을 쪽 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는 양 떼에서 양을 먹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먹는 사치스러운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하고 값비싼 고기를 먹습니다. 5절에서 그들은 수금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들은 스스로 음악 악기를 발명합니다.

그들은 한 그릇의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패망을 슬퍼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들은 한 그릇씩 와인을 마신다. 그들의 삶은 쾌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요셉에게 닥칠 멸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자들 중에 첫 번째가 되리라. 그리고 기지개를 켜는 자들의 흥청거림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모스가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심판, 즉 형벌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앗수르가 그들을 점령할 때 일어날 모든 공포와 박탈과 포로의 심판의 특별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번역된 7절의 말씀은 기지개를 켜는 자들의 흥청거림이 그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르자(mirza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특정한 동족어와 그것이 다른 언어와 성경 외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어근을 살펴보면 미르자 축제라고 불리는 특정한 절기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교 신들의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많은 양의 음식과 음료, 술, 쾌락, 성적 부도덕이 종종 그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이교적 맥락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맥락에서 자주 행해졌습니다. 아모스가 향락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4절에 있는 내용, 즉 상아 침상에 누워 노래하고 고기를 먹고 술을 그릇에 가득 채운 것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선지자들은 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지만, 부와 물질주의에는 그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욥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부를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의 부와 유익과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 아모스서에서도 그 개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만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이끌리고 있는 8세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문화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철기시대 집의 전형적인 표현이나 그림을 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대학 기숙사로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위험성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와 부와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정한 유혹입니다.

8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마리아 성은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50인치 TV가 아니었습니다. 새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보석이거나, 집이나 가구에 붙일 수 있는 상아 조각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합니까? 좋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에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쾌락과 개인 방종의 유혹에 유혹을 받았다면, 성과 성적인 성취, 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합니까?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율법적인 목록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쾌락과 부, 개인적인 방종, 섹스와 마약과 술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저는 8세기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부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아모스가 집중할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 대부분은 사회 정의라는 주제가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8세기에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사회, 이웃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빌려주는 사회가 아니라 놀라운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이웃에게, 서로를 보살피고, 자신보다 남의 필요를 배려하는 곳에서, 가난한 이웃을 이용할 정도로 부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은 모든 다양한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팔았음이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속에 짓밟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비켜가느니라. 한 남자와 그 아버지가 한 여자에게 동침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을 낸 자들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목록과 목록을 주려고 할 때, 그가 우리에게 주는 목록은 특별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에 너무 집착하여 신발 한 켤레에 의인을 팔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이 여자와 동침하고 있고 그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불쌍한 여종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기에 모순이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있고 아모스서 전체에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산의 살진 소들은 자기 자신만 먹어치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5장에서는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반복적인 외침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6절, 여호와를 구하면 살리라.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에서 우리는 아모스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유일한 잠재력,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5장 24절에서 아모스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회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단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에 대한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신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구약성서 전체에 비추어 아모스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모스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에게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줄 원형, 모델, 모범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더라도 구약을 율법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세우실 때, 다른 민족들에게 모델과 빛이 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때 그에게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이고, 이것이 바로 이 문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정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Mishpat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의미하는 것과 구약에서 정의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생각하며 정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정의는 그 이상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개념을 확장하여 진정한 정의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계하신 방식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부가 당신 삶의 초점이 될 때, 그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우상이 될 때, 그것이 당신의 궁극적인 안전과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너무 중요해져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 나의 궁극적인 선이 된다면, 개인적인 방종, 즐거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선이 된다면, 하나님 대신에 나는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나 자신과 나의 노력, 나의 노력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 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죄 목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고 부정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상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곡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은 너희 허물이 많고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때에 슬기로운 자는 잠잠하리라 이때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는도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위나 억압이나 탐욕,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이사야가 5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밭에 밭을, 집에 집에 밭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결코 그 집에 살 기회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주신 밭을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 내가 그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여 너희가 그 땅의 유익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이 이웃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모스를 구약의 맥락에 놓을 때, 이는 8세기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였던 모든 방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 오경, 토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관해 말씀하신 몇 가지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한 이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취하고 우리가 방금 아모스에서 본 것과 나란히 놓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확히 따라야 하는 법전이던 아니면 단지 그들에게 이상을 가르친 것이던 간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은 토라 윤리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돈을 담보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담보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기 겹옷이나 외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 이웃은 그 겹옷을 담보로 준 가난한 이웃에게 가서 그가 추워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허락해 주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이 불쌍한 사람을 너무 걱정해서 매일 밤 돌아가서 겹옷을 주어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 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처음부터 그 망토를 담보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아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차이점을 보십니까?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토라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대신 그들은 성소에 와서 이웃에게서 빼앗은 담보물인 의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그것을 깔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은 법적 절차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체계적 빈곤 속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종이 되어야 한다면, 그 과정이 끝나면 자유로워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로 이것을 실천할 수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거기에 훌륭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 만약 내가 땅 주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축복해 주셨다면, 결국 그 농작물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그 결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밭 구석에서 이삭을 주울 수도 있고, 우리가 곡식을 베고 있는데 밭에 이삭이 남았으니 나는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7년마다 히브리 빚진 종들을 놓아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유다 성의 유대인들이 빚진 종을 풀어주는 이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느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침략군의 정치적, 군사적 압력이 풀리자 그들은 노예들을 되찾는다. 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동포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돕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과부와 고아에 대한 공의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화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룿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했다. 궁핍한 자들을 이용하는 대신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지도 원칙을 제공하는 핵심 장이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토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명기 15장의 구체적인 세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구절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그것을 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의 축복이 매우 광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나 풍성한 방식으로 축복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있었고, 부족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었고, 나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15장 4절에서 읽은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이 있습니다.

11절에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사회 전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땅에서 가난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 구절을 읽고 멈춰서 '그게 현실이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이러하니 너는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궁핍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당신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주먹을 꽂 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관대해야 합니다.

그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했던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는 구절은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도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빛진 노예를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그냥 놓아주고 자유롭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유롭게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너는 그에게 주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상기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8세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의 사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와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그들 자신의 탐욕, 자신들의 물질주의,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억압해야 한다면,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서 이것을 빼앗아야 한다면 나는 이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하는 내 삶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고 선지자들을 가르칠 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5장을 가져와 이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손을 펴라 그리한 후에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나란히 놓고 8세기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바산의 살진 소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이 여자들은 신명기 15장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6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시온에서 평안히 지내며 미르차 축제와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5장과 비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과 패러다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실은 그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신과 왕과 통치자를 갖고 싶어했을 때, 그로 인해 그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도 다른 나라들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야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장려할 때,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인간과 똑같은 신들이 있습니다. 탐욕, 물질주의, 폭력, 술고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신을 숭배하면 결국 그들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셈이 됩니다. 구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노예 생활과 속박에서 구출하는 위대한 행동을 하신 신을 숭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잠을 자고 무엇이든

하는 가나안 하나님의 정신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그 신들 중 하나를 섬길 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의 땅을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할 때 그 땅을 빼앗고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따르는 신들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동을 따르고, 그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공유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신약성경에 대한 적용과 적용이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고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여러 면에서 구약의 정신에 깊이 흡수된 야고보는 참된 종교와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를 말합니다. 그것은 의식도 아니고 활동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세상에서 흠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정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8세기 이스라엘의 행동은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에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토라나 구약의 선지자들 중 어느 쪽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식단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작가와 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와 모순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데이비드 플랫폼과 그의 책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 복음의 길을 가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 사역과 메시지의 초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돌볼 것입니다.

종종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임무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와 복음 선포에 딱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단지 사회복음의 영향과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윤리, 가치,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종종 무시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 책인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오늘날을 위한 구약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으며 토라의 정신,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 15장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손을 펴서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신약성경으로 가면 그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팔거나 나누어 주어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사도들에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도행전이 교회가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모습의 모델입니다.

종종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실 때 그들은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와 탐욕, 물질주의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때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의 정신에 스며드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장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아모스와 동시대의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세기 출신이다.

그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 번, 그가 8세기에 유다에게 말한 것과 그가 기록할 다양한 죄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8절, 가옥에 가옥을 합하며 밭에 밭을 더하여 자리가 남지 않게 하여 땅 가운데에 혼자 거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맹세하셨으니 분명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 주민 없이 남게 될 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 에이커의 포도원에서는 한 바트만 생산되고, 한 밭의 씨앗은 한 에바만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욕스럽고 물질주의적이며 토지를 빼앗고 이런 일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들리나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탐하며 저녁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개인적인 쾌락, 마약, 술에 집착하여 그것이 싸움이 되는 문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 그게 우리 문화야.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죄를 끌어당기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사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디오나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도덕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제22장: 포도주를 마시는 데 영웅적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이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에 실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가 백성들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전하려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들이 이웃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15장의 원칙과 이상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얼마나 반영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모스서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우리가 그 점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아모스서, 사회적 죄 6강입니다.